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4 봄 이야기
vol.173
www.holt.or.kr





봄 이야기

뇌성마비 장애가 의심됐지만 치료를 받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사랑이(13개월, 태어났을 때부터 구순열을 비롯한 많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술을 통해 계속 나아지고 있는 하늘이(13개월), 같은 달에 태어난 이 두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곤 해도 홀트 가족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그저 사랑스럽기만 해요.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 덕에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p.10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 · Studio H2

Contents

- 03 Holt Letter
- 04 사업 소개
- 06 입양, 우리 품으로
가슴으로 낳은 입양, 현재 진행형
- 09 Zoom In
2014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 10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첫 생일잔치
- 14 Love In World
함께 시작해요 몽골 게르촌 아동 결연
-몽골 울란바타르 성간해르촌 구 도시빈민아동 지원사업
- 16 희망 풍경
동그라미 가족의 고향 방문
- 18 희망 에세이
삶의 무게
- 20 곳곳GoodGood한 엄마
우리 엄마는 18살
- 22 기획
미혼 양육모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 25 나눔이웃 나눔기업 1
입양인 형아, 산타가 되어 돌아오다!
- 26 나눔이웃 나눔기업 2
3색 이벤트로 따뜻한 나눔 기업
- 28 홀트 게시판
2013 후원금 사용 보고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3호 · 기간 발행일 | 2014년 3월 14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조철행(자원개발실실장), 홍미경(홍보팀장), 신미숙(후원팀장), 이수연(국내 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이해경 이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부웅 이사(HICS 수석 고문)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보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고문) 홍현국 감사(공인 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주영어원 T.063)222-1559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울·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사랑들 www.holtlove.or.kr T.053)756-0184 아침들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들·아침들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achim.or.kr/sub08/sub08_1.php T.042)583-4006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아동을 돕는 사회복지전문기관이며 전국 10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새 봄, 희망을 노래합시다

대지에는 코끝을 시리게 하는 잔설이 아직 남아 있지만 땅속에는 겨우 내 기다리는 봄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새 봄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홀트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를 어렵게 했던 모든 일들은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 새해를 맞아 준비한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정리, 탄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홀트는 1955년 해리 홀트 씨 부부에 의해 설립된 이래 59년 동안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 장애인, 미혼모 등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변함없이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주년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동반자로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홀트에서는 그동안 각 지부의 자립 운영 방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는 그 계획을 완성하는 해로 인천에 건물을 건축하고, 광주에 구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입양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꿈동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후원자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미혼모 지원 사업으로 미혼모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확대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후원을 추진해나가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문화 복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결연사업 및 방과 후 교실 운영도 캄보디아와 몽골에 이어 또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를 선정, 사랑을 나누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기아들의 안정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그룹홈' 사업도 정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홀트는 사회복지를 위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으로서 교회와 협력을 통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한 '홀트교회협력위원회'의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홀트를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며 격려해주시는 모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장 김대열 올림

홀트아동복지회를 소개합니다

올해로 59주년을 맞는 홀트아동복지회. 과연 어떤 복지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홀트아동복지회가 섬기고 나누는 복지사업을 소개합니다.

홀트의 미션 '사랑을 행동으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가정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홀트의 미션입니다.

홀트의 시작은 '사랑'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는 결연 후원을 넘어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부인 버다 여사와 함께 전 재산을 바쳤으며, 아이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다 숨을 거둔 해리 홀트 씨는 그가 손수 일군 홀트 입양복지타운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까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와 해외 빈곤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손길

'홀트아동복지회의 복지사업'

* 국내 사업 *

입양복지사업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시작된 입양
1955년 10월 한국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하는 것으로 시작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창립정신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한국과 세계 입양복지사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 전문성과 신뢰를 가진 전문상담소 운영

1957년 국내 입양을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지금까지 약 2만 4,000명의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었고, 전국 10개 사무소를 중심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 전체 1,125명(21개 기관 합계) 국내 입양 아동 중 405명(36%)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연결된 만큼 믿음과 신뢰,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입양인·입양가정 지원 프로그램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 상담과 교육, 가족 캠프, 입양가족 자조모임(홀트한사랑회 www.holtlove.net)을 지원, 행복하고 건강한 입양가정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외 입양인 친가족 뿌리 찾기, 국외 입양인을 위한 모국 방문 및 모국정착 지원, 통·번역 서비스, 민박 지원 등 모국문화와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

• 홀로된 영유아 가정위탁보호

계획되지 않은 임신, 빈곤, 가정 붕괴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후 1개월에서 3세 미만 아동 500여 명이 홀트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는 영유아들의 언어·신체·정서 발달을 위해 1965년부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교육 및 의료 지원

만 1세 이상 아동들의 신체·사회적 발달 도모와 발달지체 아동들의 지능·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문제를 지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홀트의를 운영, 전문 의료진이 매월 건강검진을 통해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전주영아원 일시보호소 운영

빈곤, 부모의 이혼, 아동 학대 등으로 가정을 잃어버린 영·유아와 아동을 위해 전주영아원과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며 아동의 성장과 교육, 입양을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위기 상담 및 빈곤 미혼모자가정 생활 지원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모와 가족, 아동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자 가정을 위해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구축,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동 장애 상담과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임신으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인 홀트고운학교, 아침뜰학교를 설립,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혼모자 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전국 6곳에 운영, 숙식과 의료 제공,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보호사업 및 재활·자립 지원

영아부터 장년층까지 돌보아줄 가정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산복지타운·요양원을 운영, 맞춤형 재활치료와 교육훈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호 작업장을 운영,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영혼의 소리' 합창단·'홀트휠체어농구단' 등 예술과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 산실 홀트학교

정신지체를 지닌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1975년 특수학교인 홀트학교를 설립, 장애 학생 200여 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공과 설치와 경기고양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정을 위해 도우미뱅크와 주간보호센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해 보호 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스포츠센터를 설립, 재활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 지역사회 복지 향상 및 교육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운봉종합사회복지관·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가족 상담과 교육,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족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구, 하남 등 5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홀트심리상담센터

정서·행동·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해 심리 상담과 미술·언어·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희망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1982년부터 장학금 지원을 시작, 9,100여 명에게 3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전국 300명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후원회

지역사회의 적합한 모금활동과 자원봉사를 위해 전국 15곳에 홀트후원회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생애주기별 가족 성장에 따른 교육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상담, 가족돌봄 지원, 가족 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하남·대구)와 우리 사회에서 확대되는 다문화가족을 돕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3곳(서울·대구·춘천)에 운영,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가정복지연구소를 설립, 사회복지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업 *

• 해외빈곤아동 결연 및 환경 개선

해외 빈곤국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캄보디아에 홀트드림센터를 운영, 교육·보건·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해외 빈곤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년 후 생긴 변화와 행복

2011년 어느 날, 외동딸 여진(현재 13세)이의 “왜 약속 안 지켜”란 말에 부부는 화들짝 놀랐다.

2년 전, 딸아이의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엄마 나이도 있고 출산은 힘들어. 음~ 입양은 할 수 있지만...”이라 대답한 적이 있었다. 입양이란 말에 여진이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좋아! 입양도 좋아” 했더라. 결혼 전부터 부부 또한 입양을 생각한 적도, TV에서 입양가족이 나오면 부러웠던 적도 있던 터라 바로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고, 부부 또한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란 걱정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한 채 ‘입양’은 잊혀졌다. 그러다 몇 년 전, 딸 여진이의 제안에 부부의 소망이었던 입양이 다시 떠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2년이 사실은 모두에게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부부는 깨달았다. 양가 부모님도 허락해주셨고, 사회가 가진 입양에 대한 편견도 변화된 듯 보였다. 무엇보다 부부가 가졌던 두려운 마음이 털끝만큼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입양이 실제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거기가 돌썩이네요.”

이들 이야기에 미소를 짓는 노연정 씨는 “은택이 입양 후 가족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고 말한다. ‘은혜의 연못’이란 뜻으로 지어 준 이름처럼 은택이로 인해 가족은 ‘은혜’가 넘쳤고, ‘행복 그 자체’를 경험할 만큼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족이 마음을 열고 진심



1 은택이 엄마는 셋? 은택 해바라기 가족들. 2 은찬이는 여진 누나를 닮았단다.

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딸 여진이의 꿈이 ‘교사’ ‘과학자’ 등에서 ‘아동복지사’처럼 남을 돕고 아이들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 또한 이런 변화로 인해 여러 꿈을 꾸게 되기도 했다.

하루하루 기다리기 힘든 시간들

2011년 7개월이 된 은택이가 가족이 되면서 평범했던 일상은 하루하루가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었다. 첫 아이를 다시 키우는 기분이 새록새록 드는 부부는 ‘늦둥이 맛’에 취해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은택이에게 같은 입양형제가 있으면 훗날 서로 의지하며 입양에서 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러나 막상 실현하려고 보니 첫 입양 때보다 많은 문턱이 있었다. 양가 부모님의 더 적극적인 반대, 입양 특례법의 변화 등으로 확실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부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둘째 입양을 준비했다. 2013년 추석 무렵 시작한 둘째 입양 절차는 2014년 2월이 돼서야 끝이 보였다.

‘은찬, 은혜의 찬양’이란 뜻의 이름을 여진이가 지었다. 은찬이로 인해 은택이가 사랑을 뺏길까 걱정하며 반대 의사를 보였던 여진이도 ‘자신이 혼자 자라 외로웠던 것’처럼 은택이에게도 형제가 필요하며 오히려 부모님께 입양을 서두르도록 권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만나겠지, 아니 구정에는 은찬이까지 다섯 식구가 모일 수 있겠지, 그러던 상상이 계속 깨져갔다. 은택이 입양 때와 다른 입양법이 낫설었고, 한편 지치기도 했다. 많아진 구비서류도 착실히 준비했고, 입양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입양부모 교육도 인천, 서울에서 따로 받았다. 부부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1월 14일, 법원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생전 처음이라 무척 떨렸죠. ‘무엇을 물어볼까’ 혹시나 ‘입양불가’ 판정을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오히려 판사님이 “둘째 입양까지, 대단하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긴장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법이 변경된 지 1년이 지나 서인지 좀 안정이 된 듯했지만, 정말 입양부모 입장에서 불편한 과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부는 결국 입양확정을 받게 됐고, 이제 가족기록에 옮기고 개명신청을 거치면 비로소 입양절차가 끝나게 된다. 다만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광삼학 씨는 ‘생모’였을 미혼모 입장에서는 입양특례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연 청소년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법대로 하겠냐는 것이다.

가슴으로 낳은 입양, 현재 진행형

첫 아들 은택이 입양 때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2년의 기다림을 통해 낳았고, 두 번째 아들의 입양은 이미 준비된 마음과는 달리 ‘입양특례법’이 변해 6개월의 긴 기다림을 겪고서야 아이를 품에 안은 광삼학(44)·노연정(44) 부부. 딸 바보에서 아들 바보로 바뀐 부부의 사연과 입양 과정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가슴으로 품고 키우는 과정, 진행형

“입양한 아이는 당연히 부모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요. 어쩌면 점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장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배로 낳은 아이는 모든 차이와 장애를 수용하면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닌지... ‘가슴으로 품고 키우는 과정의 진행형’인데 말예요.”

아이들의 입양이, 특히 남자 아이들의 입양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곽상학(43)·노연정(43) 부부의 생각이다. 이들이 딸 입양에서 아들 입양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도 ‘아들은 입양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상담자의 조언 때문이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아이들이 가정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아이들이 있어 너무나 든든하다고.

글 _ 김은희 · 홍보팀

10년 후의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든든한 우리 두 아들 은택이, 은찬아!
올해가 2014년이니 10년 후면 2024년이겠구나. 아빠는 54살, 은택이는 14살 중, 은찬이는 12살 초도. 너희들은 한창 뛰어놀고 있겠지? 아빠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배가 더 나올 테고? 훗, 하지만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바로 아빠 옆엔 두 아들이 딱 버티고 있을 테니 말이야. 아빠는 너희들과 하고 싶은 게 참 많단다.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는 야구놀이, 찜질방에서 늘어지게 누워 있기, 기타와 드럼 연주하기, 신나게 자전거 타기, 등산 후 겁라면 먹기, 낚시하고 매운탕 먹기, 놀이동산 가서 담력 테스트하기, 엄마와 누나 골탕 먹이기, 1박 2일 기차여행 등...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너희들, 아빠가 레크리에이션 강사이자 웃음치료사인 거 알지? 그런데 사실 아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줄 수 있는 건 너희로 인해 완전한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이야. 아빠는 너희들이 있어서 참 기뻐. 때로는 아빠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 그 속상함마저 즐기려고 하지. 아들들! 이제 우리 집에는 남자가 더 많으니까 여자들을 잘 지키자! 엄마하고 누나한테 더 잘 하고 보호해주자. 무엇보다도 아빠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분을 잘 섬기는 거야. 슈퍼맨 같은 아빠는 되지 못하더라도 함께 슈퍼마켓은 자주 다니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누나의 동생이 되어줘서 고마워. 은택이, 은찬이 사랑한다.



2014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 공모주제

“소중한 내 아이, 행복한 우리 가족”

* 소재

- 입양과 더불어 탄생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
- 국내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한 작품
-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입양으로 만나 ‘가족’으로 엮여 행복했던 순간들, 기쁨과 아픔이 공존한 입양가족들의 아름다운 추억

* 응모 기간

2014. 3. 10(월) ~ 2014. 4. 7(월)

* 참가 자격

입양가족 누구나

* 공모 분야 & 형식

- 사진: jpg 형식(2,200x1,500pixel 이상 권장)
- 동영상: 창작 제작한 동영상, 사진 등의 동영상으로 3분 내외, wmv, avi 파일
- 응모자 또는 가족이 직접 촬영·편집한 작품으로 각 1인 2점 응모 가능



* 시상 내역

사진	동영상
• 대상(1점) : 50만 원+니콘 디지털카메라(Nikon 1 J2)	• 대상(1점) : 상금 100만 원
• 우수상(4점) : 20만 원	• 우수상(2점) : 50만 원
• 입상(5점) : 10만 원	• 입상(7점) : 20만 원
• 참가 기념품(20명)	

* 접수 방법

- 제출물 : 참가신청서(www.holt.or.kr 다운로드)와 응모작
- e-mail 접수 : 사진 photo@holt.or.kr / 동영상 ucc@holt.or.kr

* 발표

2014년 5월 2일(금) 개별 통보 & 홈페이지 공고

*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02-331-7079 / pr@holt.or.kr

* 주최 :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 : 보건복지부

* 협찬 : (주) 니콘이미징코리아

1st BIRTHDAY PARTY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첫 생일잔치

아직 겨울임에도 따사로운 봄벌의 기운이 감돌던 지난 1월 28일, 1년 전 태어난 네 명의 아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잘 자라 건강한 모습으로 첫 돌을 맞았다. 풍성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어느 돌잔치 못지 않게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건,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라...

웃음으로 가득한 천사들의 첫 생일

아기자기한 새하얀 탁자 위에 놓인 케이크, 첫 돌을 알리는 숫자 '1'이 크게 새겨진 생일상이 네 명의 주인공을 기다린다. 어느 돌집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도, 한상 크게 차려진 것도 아니지만 정성만큼은 부족하지 않은 돌상. 자원봉사자들이 케이크부터 사진 촬영까지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 모두 신경 써서 준비해서인지 어느 돌잔치보다 풍성함과 따뜻함이 가득 느껴진다.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만난 주인공은 웃음공주 별이(가명). 낯선 환경 탓인지 위탁어머니 품에 안겨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니 봉사자들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제야 살며시 미소를 띤다. 별이가 마음 놓고 웃고 있던 그때 두 번째로 하늘이(가명)가 등장한다. 아이를 보자마자 모두의 입에서 튀어 나온 말은

희망을 기다리는 별이

'까르르' 강당 가득 별이의 웃음소리가 퍼진다. 봉사자들이 후~하고 얼굴에 바람을 불며 장난을 치자 환한 웃음으로 답하는 별이. 정도 많고, 웃음도 많아 어디를 가든 사랑을 독차지한다.

"평소에 애정표현을 아낌없이 해요. 특히 뽀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붙임성 좋고 정 많은 걸 보면 커서도 사랑을 잔뜩 베풀지 않을까 싶네요."

돌잔치 내내 위탁어머니 허금자(62) 씨를 어루만지고, 꼬~옥 안아주고, 해맑게 웃는 아이. 그 얼굴에서 사랑이 가득 느껴진다. 한편 이렇게 예쁜 아이가 친모 쪽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는 소견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입양이 되지 못한 채 위탁가정에서 자라 안타깝다는 위탁어머니. 내 자식보다 귀한 보물 같고, 정도 많이 들어서 헤어지기는 아쉽지만 별이에게 어서 따뜻한 가족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별아... 부디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좋은 부모님 만나 별이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더 많은 사랑 받고 자라길 바래. 사랑해..."

웃음이 많은 아이 별이



"더 잘생겨졌다" "갈수록 예뻐지네". 그도 그럴 것이 하늘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쪽입술갈림증을 동반한 입천장갈림증, 요도하열, 곤봉발, 동백관개방, 지속성 제2공결손증이라는 복합장애를 겪어 여러 가지 수술을 거처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눈에 띄게 예뻐진 모습으로 이렇게 편하게 웃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 뒤이어 사랑이(가명)와 희망이(가명)가 강당 안으로 들어온다. 태어났을 당시 뇌성마비 장애로 의심되는 몇몇 증상들이 보였지만 꾸준한 치료로 현재는 많이 회복한 사랑이,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어떤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돌을 맞이한 엄지공주 희망이까지.

"이런 돌잔치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토록 기쁘고 행복한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위탁어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힌다. 나눔으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뜻깊은 그들만의 돌잔치. 천사 같은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위해 모인 많은 이들의 웃음에서 진한 행복이 느껴진다.

온정 넘치는 손길 속에 치러진 돌잔치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사진 촬영부터 케이크 커팅, 돌잡이 등까지 어느 돌잔치와 다를 바 없이 진행이 척척 이루어진다. 예쁜 한복도 곱게 차려 입고, 노래도 불러주고, 위탁어머니와 함께 촛불도 끄며 시간이

모두의 바람처럼...

태어났을 때 사랑이는 뇌성마비 장애로 의심되는 발달지체 증상들이 보였다. 목도 뻣뻣하고, 얼굴 표정과 걸음걸이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꾸준한 물리치료 덕분에 지금은 몰라보게 좋아진 아이. "얼굴은 세 번의 물리치료를 받아서인지 표정이 한결 자연스러워졌어요. 말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지 모를 정도죠. 남은 치료도 꾸준히 잘 받으면 웬만한 아이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져서 마음이 놓인다는 위탁어머니 김옥순(56) 씨. 성격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밝고 활발해 사랑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 화사한 분위기가 된다. 아직 입양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문득 사랑이와 헤어질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드는 위탁어머니. "아이들을 보낼 때마다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 같아요. 허전함이 클 테지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 아쉬움보다는 축복하는 마음이 더 큰걸요. 빨리 좋은 부모님이 나타나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사랑이만을 위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겠죠?" 누구보다 사랑이의 행복한 앞날을 간절하게 바라는 김옥순(56) 어머니. 그녀의 바람처럼 어느 곳에 있던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만이 가득하길...

사랑이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



갈수록 마스함으로 더욱 충만해진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화려한 장식의 케이크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연신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들의 얼굴을 가득 채운 건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드디어 돌잡이를 시도한다. 위탁모들이 "연필 잡아라, 돈 잡아!" 하며 박수를 치자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는 아이들. 그러더니 물건을 하나씩 집어 들기 시작하는데 별이와 희망이는 돈을, 하늘이는 판사봉을, 사랑이는 공을 선택한다.

하지만 기쁜 외중,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느껴진다. 입양을 원하는 대다수의 부모가 여아를 선호하는데다, 장애를 가졌거나 가족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은 1년씩이나 위탁가정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아까 케이크에 불을 끌 때 아이들이 어서 빨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기도했어요."

떠나보내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루 빨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게 위탁어머니들과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하나된 바람 아닐까. 그 마음이 한데 모여 어느 돌잔치보다 아름다웠던 네 아이의 오늘.

"애들아,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의 행복을 기다려. 앞으로 지금보다 밝게 웃을 수 있길 기대할게. 사랑해." #HWT



웃음과 희망을 찾은 아이

일반 구순열과 달리 코까지 갈라져 있어 수유 시 특수 젖병을 사용하는 등 너무도 힘겹게 밥을 먹던 하늘이. 게다가 태어났을 당시 오른쪽 발바닥이 몸 중앙 쪽으로 틀어져 있어 교정 수술을 한 뒤 장장 6개월 동안 깁스도 하고 있어야 했다. 어른도 참기 힘든 과정을 대견스럽게 잘 견뎌 이토록 감격스러운 첫 생일을 맞이한 하늘이.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밥도 잘 먹고, 걸음마 연습도 시작했단다. "아직 딱딱한 음식을 먹기는 힘들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밥도, 간식도 잘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뿐이죠"라며 하늘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위탁어머니 고복순(60) 씨.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하늘이를 볼 때면 감사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녀. 눈을 마주치면 뚝뚝 뚝뚝한 눈으로 워크를 발사해 마음을 녹이고, 옆 사람을 토닥토닥해주는 등 애교도 부쩍 많아진 하늘이는 이제 2월 4일 마지막 수술만 받으면 완벽하고 예쁜 입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수술도 잘 이겨내 밝은 웃음이 가득하길...

하늘이,
이제는 밝게
웃을 수 있어요



씩씩한 엄지공주
희망이



새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 안았는지 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새털처럼 가볍고 작아서, 유리알처럼 깨지지 않을까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2.3kg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지냈던 희망이를 품에 안고 데려오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는 위탁어머니 최추화(54) 씨. 처음에는 낮가림도 심하고, 먹는 것도 부실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행여 밥을 먹다 사례라도 들리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감기라도 걸리면 심하게 아플까봐 노심초사 많은 걱정을 한 그녀와 가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다행히 건강하게 첫 돌을 맞이한 희망이다. 엄지공주라 불려도 될 정도로 얼굴도 하얗고 조막만 한 외모를 지녀서인지 가족들은 가끔 조절조절 양양이하는 희망이를 볼 때면 인형이 말한다고 꼭 빠질 정도다. "희망이는 곧 입양될 예정이에요.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좋은 부모님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잘 먹지만 하면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창우는

수술 후 상태가 크게 악화되진 않았지만, 아직 이비인후과와 비뇨기과 쪽 진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에 다시 병원에 가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큰 수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 창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함께 시작해요! 몽골 게르촌 아동 결연

- 몽골 울란바타르 성긴해르혼 구 도시빈민아동 지원사업

홀트아동복지회가 캄보디아에 이어서 해외 원조 사업국으로 선정한 나라, 몽골. 몽골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땅이 19번째 로 넓고 세계 7대 자원 부국임에도 GDP(국내총생산)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나라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해 왔던 민족이라서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빈민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1달러 미만인 소득 수준인 인구가 4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몽골의 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는 몽골 울란바타르 성긴해르혼 구에 있는 게르촌 빈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홀트와 몽골의 첫 인연

홀트가 두 번째로 해외지원사업을 하게 된 몽골과의 인연은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 이주노동자 가정을 돕던 것이 그 계기인데, 당시에는 재한몽골초등학교 설립에 같이 힘썼으며, 몽골아동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몽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조사와 계획을 위해 2013년 한 해 동안 현지 조사와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이 걸려서 도착한 가깝고도 먼 나라. 수도 울란바타르는 밤기운이 제법 짙습니다. 몽골 사람의 생김새로만 봐서는 이곳이 외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와 닮아서 묘한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도시빈민 밀집 지역 게르촌

울란바타르 시내를 바라보니 도시는 민둥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기슭까지 몽골식 이동 천막집 밀집지역인 게르촌이 넓게 펼쳐 있었습니다. 이 게르촌은 울란바타르 중심부를 둘러싸고 방사

형으로 넓게 뻗어 있습니다.¹⁾ 게르촌은 지방에서 이주한 유목민들의 거주지로 무려 시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데, 게르촌이 팽창하면서 시 전체는 빈곤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²⁾ 몽골에서는 하루 소득이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비율이 39.2%며, 대다수의 게르촌 주민은 극빈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게르촌은 울란바타르 중에서도 성긴해르혼 구에 제일 많습니다. 32동 중 20개 동이 게르촌으로, 특히 식수와 위생시설의 부족, 난방문제, 생활폐기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빈곤으로 인해 가족해체가 일어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구 단위의 사회복지 사무소에서 이 지역에 2010년부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가족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지역 사회복지사무소를 방문해보니 게르촌 극빈 가정들에 다달이 가구당 \$30씩 지원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빈곤가정의 통장관리부터 일자리 알선, 영양보존 개선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마다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하

고 증빙자료로 사진까지 첨부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수가 정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홀트는 몽골의 사회복지기관과 손을 잡고, 몽골 아동 결연사업을 통해 교육과 의료, 위생문제 등을 돕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홀트에서는 몽골 현지인 직원 1명을 채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아동결연사업을 함께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직접 게르촌을 방문해보기 위해 길을 나섰던 날. 시내를 조금 벗어나자 나무 벽에 하얀 천을 씌워 만든 둥근 이동식 천막집이 한없이 나타났습니다. 게르 안에는 가운데 작은 화로가 있고 침대와 가구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온 식구가 밥은 어떻게 해 먹는지, 화로 하나로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참 막막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볼 수 없고 수도시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가정방문을 할수록 마음이 계속 무거워졌고, 앞으로 홀트가 도와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로 몽골 게르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지역의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많아 3교대 수업을 하는데 책값이 비싸서 교과서가 무척 귀하다고 합니다. 한 집에 보통 2~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엄마들은 바느질·빈병 수집·잣 줍기 등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홀트에서 조금만 힘을 보태면 게르촌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몽골 지원사업은 이 지역뿐 아니라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출발점에서 있는 홀트의 몽골 사업에 부디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따르길 바라며, 몽골의 아동들과도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홀트가 전하는 사랑으로 게르촌 아이들이 가난을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글 _ 이필영 · 해외사업팀

1) 몽골국가협력전략 2012-2015(관계부처합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sia/Mongolia.jsp
2) MDGI, The Fourth National Report(Ulaanbaatar, 2011), 세계은행 Databank(<http://databank.worldbank.org>)

동그라미 가족의 고향 방문

설 명절, 고향이나 가족이 아닌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홀트가 고향이자 가족이었던 분들입니다.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아이들에게 큰 아버지가 되고, 삼촌·이모가 되는 날. '사랑'으로 자라온 '동그라미' 회원들의 설 풍경을 소개합니다.



새해 아침

갑오년 정월 초하루, 홀트타운은 새해를 맞이하는 움직임으로 아침부터 부산합니다. 특히 말리 홀트 이사장님께서 계시는 말리하우스는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홀트타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삼삼오오 세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면서 오가는 사람들로 문턱이 닳을 지경입니다. 걸어서 오는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방문객도 참 다양합니다. 부산한 아침이 지나갈 무렵 말리하우스를 찾는 특별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가족도 있고, 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는 부모도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가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님들은 바로 고향을 찾아온 또 다른 홀트 가족입니다. 이들은 모두 홀트타운에서 독립한 동그라미 회원들로 해마다 설과 추석이 되면 홀트타운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이곳 일산타운을 지키고 있는 말리 홀트 이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리 이사장님은 이들을 어

릴 적부터 돌봐주시고 결혼식 때는 부모님처럼 곁을 지켜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리 언니' '말리 누나'라 불립니다. 동그라미 회원들은 말리 이사장님께 세배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덕담도 나눕니다. 아이들은 말리 할머니한테 세뱃돈도 받습니다. 어느 가정과 다름없는 풍경입니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어느 가정보다 식구가 많은 대가족이라는 점입니다. 무려 40가정 50여 명이 넘으니 말입니다.

설날 저녁

홀트기념관 2층 게스트하우스, 고향을 찾아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입니다. 해가 떨어지자 게스트하우스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그라미 가족들이 모여 웃음이 가득한 모양입니다.

동그라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달 씨네 가족과 윤명옥 씨네 가족이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마지막에 연속으로 웃을 던진 은호로 인해 윤명옥 가정이 2:1로 우승을 했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웃놀이 대항전이 끝난 후 우승 가족은 5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

마음의 고향

몇 년 전 홀트타운이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홀트타운 식구들에게 "홀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소한 분들에게서는 '고향'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홀트는 가족이자 고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며, 누군가에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한술밥을 먹은 식구들이니까요.

"말리 언니가 돌아가시면 이곳에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홀트타운은 이곳을 거쳐간 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HOOT**

글 _ 이창신 · 홀트일산복지타운



동그라미 가족 모임은?

홀트 씨 부부는 아이들에게 의식주 등 긴급구호를 서비스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입양했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했습니다. 장애로 인해 입양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아지자 1961년 이곳 일산에 장애인생활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설립해 장애아동들을 돌보았고, 일산타운도 집처럼 지어 교사와 아동들이 어머니와 자녀처럼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홀트 씨의 정신은 홀트타운의 운영이념이 되어, 장애인들도 성인이 되면 독립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홀트타운에서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 독립한 가정은 약 40가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녀는 3세까지 태어났습니다. 홀트 역사 60년이 나온 아름다운 기적이죠. 이들은 '동그라미 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설과 추석, 그리고 말리 이사장님의 생일이면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축하와 위로도 해주고, 작년에는 그동안 모은 회비로 제주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삶의 무게

사회복지사로서 홀트일산복지타운(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할 때 일이다. 300명의 중복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은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중도에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인들이었다는 데 더욱 놀랐다. 나는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처음 보았고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 내고자 하심이라(요 9:1~3).'

홀트타운은 시설이 크기 때문에 많은 방문자들이 시설을 견학한다. 그때 나는 시설 견학을 오는 방문자들에게 시설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곤 했다. 제일 먼저 홀트교회에서 홍보 비디오를 보고,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생활자들에 대한 주의 등을 설명한 후 시설 견학을 하는 일정이다. 제일 먼저 홀트기념관을 견학하고 홀트 씨 모소를 거쳐 장애인들이 생활 하는 생활동으로 간다. 낮 동안 비교적 경증인 장애인들은 직업재활 훈련을 받기 위해 보호작업장이거나 언어·작업·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체육관으로 가서 운동을 한다. 그러나 중증인 장애인들은 종일 생활동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가장 중증장애인이면서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는 17살 소녀 혜경 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소녀는 대두증(머리가 커지는 병)으로 1살 때 시설에 입소해 16년 동안 생활하고 있었다. 몸의 절반이 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시력도 희미한 빛에 반응할 정도로 중증인 상태다. 모든 방문자들이 혜경 씨가 누워 있는 방에 만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된다. 몸을 살짝 만지면 해맑은 미소와 함께 약간의 반응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건강하니까 감사하세요"라고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비록 순간적이지만 많은 방문자들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숙연함까지 느낄 정도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그동안 내가 궁금해했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은혜(선물)로 주셨는데, 세파에 시달려 감정이 메말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소녀는 몇 년 후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 나는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내 삶과 그 소녀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았다. 나는 60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남에게 감동을 준 일이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삶이 아닌가. 누가 내 모습을 보고 가슴 저미도록 감사할 조건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소녀는 비록 19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온 삶 전체를 남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무게를 달 수만 있다면 누구의 것이 더 값진 것이고, 삶의 무게는 누가 더 무거울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소녀의 삶일 것이다. 우리의 삶은 길고 짧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에게 감동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나는 혜경 씨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이다. 의미 있는 값진 삶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지 않을까? 건강한 우리들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를 보고 누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경쟁사회에서 우리들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은가, 세파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든지 감사할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 그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깊은 뜻을 느끼게 된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날 때 자기의 의지에 의해 건강하게 태어난 자는 없다.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진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애인은 은혜(선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건강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일깨워주는 매우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건강한 우리는 빛진 자의 자세로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의 삶의 무게를 체크한다면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부끄럽지는 않아야 할 텐데... ✎

글_ 김대열(홀트이동복지회 회장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동광교회 장로)



19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값진 삶의 무게를 가르쳐주고간 혜경씨.

*위 글은 김대열 회장이 계간지 <한국크리스천문학> 제59호 신인작품 공모전에 당선, 신인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고뇌와 무게를 나누고자 게재합니다.



우리 엄마는 18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자퇴부터 가족까지 방향하는 삶을 살았던 18살 유미 씨. 남겨져진 줄 알았던 임신은 '엄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남남이었던 가족을 다시 '한 가족'으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루를 위해! 유미 씨는 지금, 인생의 걸음마를 다시 시작합니다.

18살, 청소년에서 엄마로

유미 씨(가명, 20)의 첫 인상은 1994년생 여느 친구들과 다름없는 풋풋한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앳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에서 '엄마'라는 사실을 상상하기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픈 남동생에게 관심이 쏠려 있던 환경에서 자랐어요. 남동생만을 더 위하고 저는 지적받고 타박받기 일쑤였죠.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 유미 씨는 점점 매사에 의욕이 없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던 18살 고등학생 유미 씨는 어느 날 더 이상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자퇴를 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하루를(가명, 22개월)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열여덟. 아기 아빠와 연락은 끊어졌고, 오갈 데를 찾지 못했

던 4개월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보단 '엄마'가 더 간절히 되고 싶었다는 유미 씨.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루를 출산했습니다. 엄마의 어지러운 마음을 아는 듯 하루는 큰 어려움을 주지 않고 순조롭게 나온 효자라며 유미 씨가 자랑합니다.

하루는 인생의 성장판

서울 한 지역의 두 칸짜리 반 지하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사는 유미 씨의 가족은 아이를 위한 물품을 살 돈도 넉넉지 못하고, 다섯 식구만으로도 딱 찬 집에는 아이를 위한 물건을 물려받 아도 놓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집 뒤에 산이 있는데다 눅눅하고 습한 기운이 강한 반 지하라서 아이가 기관지염, 아토피, 중이염 등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고 늘 약을 달고 살아요.”

염려와 달리 하루는 가족의 사랑 속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

1 하루의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뜨개질을 하는 유미 씨. 2 엄마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방긋~



를 통해 가지게 된 이름 '엄마'. 이 단어를 통해 유미 씨는 세상을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부터 고민했습니다. 우선, 검정고시로 매듭짓지 못했던 고등학교 공부를 마쳤습니다.

엄마로서 직업을 갖고자 네일 아티스트, 바리스타 등 여러 가지에 도전하며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 뜨개질과 옷 만들기에 특별한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미 씨 어머니도 딸이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루를 낳고 나서 더욱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유미 씨.

“의상실을 열어서 엄마랑 같이 옷 수선이나 제작을 하며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만난 날도 하루의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뜨개질을 하다고 합니다. 비싼 옷을 사줄 수는 없지만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옷을 입고 하루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었을 정도로 소원하게 살아왔던 식구들도 하루를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존재는 모두에게 인생의 성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도움의 힘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이런 단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나이 18살. 마주하기 어려웠을 그 시간들 가운데, 유미 씨에게는 좋은 인연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겠다는 유미 씨를 응원하고 격려해주었던

가족, 자신과 같은 처지지만 다시금 삶을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의 선배들, 꽃GoodGood한 엄마 지원금 등... 아이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이후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녀를 인터뷰하며 '홀트의 후원 이, 그리고 글을 읽고 계시는 후원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정말 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 투성이고 부족한 것들 뿐이지만, 본인이 당당해야 하루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음을 떳떳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자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루가 엄마 품에서 사회에 빛이 되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길 바라봅니다. www.holt.or.kr

글 _ 김유진 · 후원개발팀

'꽃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75
www.holt.or.kr

'꽃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Good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 하는 캠페인으로 유미 씨에게는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1년간 지원됩니다.

미혼 양육모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최근에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미혼모 또한 사회적 약자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편견 속에 숨죽인 채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사회가 함께 나눠 미혼모가 ‘한 아이의 엄마’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응원과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 양육모의 경제적 빈곤을 부분 해소하고 자립 도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억 원 규모의 싱글맘 아동양육지원사업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펼쳤다.

미혼모가 짊어진 짐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후 1970~80년대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정을 원하는 아이들은 전쟁 때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사회적으로 편견이 심하다 보니 미혼모는 출산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고, 입양 보내는 것을 최선의 결정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1984년에는 미혼모의 5.8%만이 직접 양육을 결정했던 것이 2005년 31.7%(여성가족부), 최근 절반이 넘는 거란 추측을 볼 때 사회가 변하면서 최근에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입양숙려제로 입양 결정 이전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면서 많은 미혼모가 최종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추세다.

입양에 앞서 친생부모에 의한 양육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면 그 즉시 의식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기혼여성들은 출산 이후 주변에서 지지와 환영을 받지만 미혼모의 경우 도리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아기를 돌보려면 36개



월이 될 때까지는 경제활동도 거의 힘들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7만 원 내지 15만 원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렇듯 생활이 어렵다 보니 많은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더라도 가정위탁제도에 아이를 맡긴 채 수년을 보내다 다시 입양문의를 하거나, 무력감에 빠져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기도 한다.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은 원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가족이 잘 기능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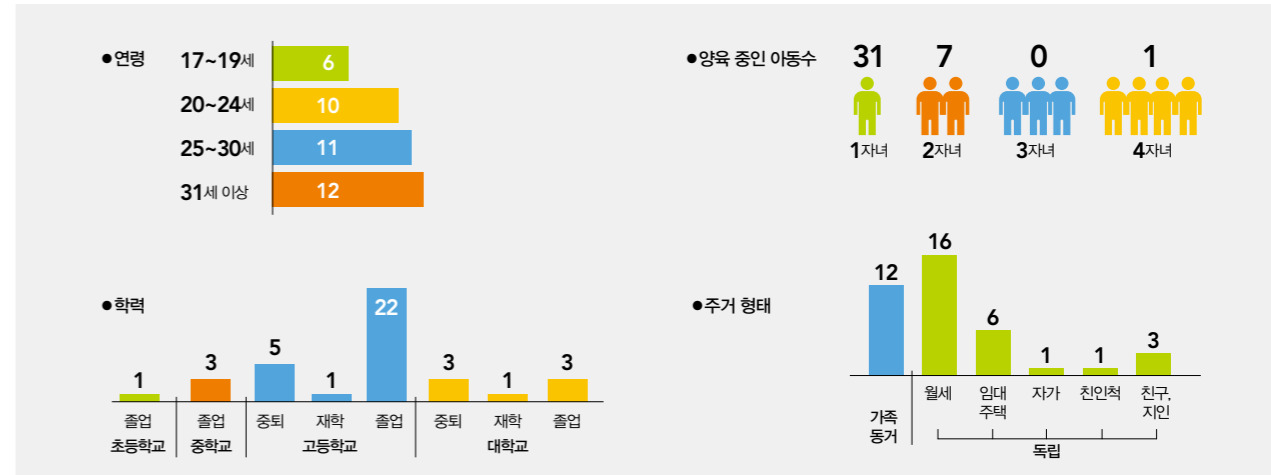
아동 행복을 지원하는 ‘싱글맘지원사업’

홀트아동복지회는 작년부터 미혼 양육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싱글맘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 양육모 가정에 20만 원씩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아동물품을 지급했는데 이보다 진일보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선택한 것이다. 민간기관으로는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약 50가정이 지원받고 있다. 지원액이 크고 선정 조건에 제한이 많지 않아 각 사정을 가진 미혼 양육모가 선정될 수 있었다.

정○○ 씨는 두 명의 자녀를 둔 미혼 양육모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정적인 고통을 가졌던 이 엄마는 미혼으로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이들마저 건강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엄마로서의 양육의지는 누구보다 강하고 헌신적이다. 수급자라 임대아파트에 거

싱글맘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조사 가점수 : 39가정 (단위 : 명)





주하고 있으나 월 임대료와 공과금, 교통비 등을 빼면 전혀 여유가 없는 상태며, 감자, 홍당무, 김 같은 기본 채소마저 미숙아로 태어난 둘째에게 지급되는 보건소 프로그램 한도에서 충당해서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둘째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 아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 후 아이들 교육과 의료보호에서 제외되는 특수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생활의 불안함을 떨칠 수 있었던 게 큰 성과다.

또 30대인 조OO 미혼 양육모는 20대에 구입한 작은 아파트가 있기에 수급자 지정 등의 정부지원은 전혀 없다. 인쇄소에서 일하며 적은 수입으로 한 치의 여유 없이 살았지만 그나마도 일이 줄

어 들면서 실직하고 말았다. 곧 다시 일을 찾기는 했지만, 압박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홀트의 지원이 있었기에 모든 의지를 놓아버리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조OO 씨는 홀트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7개월 지원을 받는 동안 아이도 자랐고 조금씩 여유도 찾고 있는 듯 보였다. 이렇듯 미혼 양육모는 자신의 뜻과 달리 끝없는 양육부담과 경제빈곤의 불안함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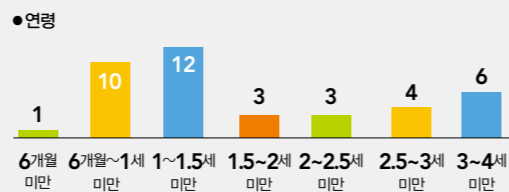
대부분의 미혼 양육모는 이외에도 아동 출생 직후부터 거주할 공간을 갖기 위해서도 분투해야 한다. 미혼 양육모 시설은 전국에 25개이고 서울에 단 5개뿐이다. 거주공간만 있어도 보다 편안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아이와 애착을 잘 형성해나갈 수 있다. 아기와 엄마를 안정되게 보호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홀트는 미혼 양육모 공동시설을 서울과 대전에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와 광주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좋은 엄마로 거듭나도록 지원 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이혼가정, 조손가정, 편부모가정, 독신가정 등 기존의 양쪽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만을 가정의 표본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지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혼인 지위에 상관없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다.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걱정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동을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미혼 양육모가 좋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글

글 _ 이수연 팀장 · 국내입양팀

자녀 현황 (단위: 명)



입양인 형아, 산타가 되어 돌아오다!



낮선 사람이 들어오자 잔뜩 경계하던 홀트일시보호소 아이들이 방문자의 손에 들린 장난감을 보곤 곧 표정을 바꾼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013년 12월 13일, 장난감을 빨간 자루 한가득 담고 홀트 아동복지회를 찾은 사람은 주한미국해병대에서 근무하는 티머시 파울리나(29) 대위, 바로 홀트 입양인이다.

그는 미 해병대 자원봉사단 대표로 활동하면서 'Toys for To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부대 군인과 가족들에게 장난감을 기부하는 활동을 11월부터 열심히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모아진 장난감을 보곤 '누구에게 선물할까' 고민하게 됐고, 마침 '홀트'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한다. 1984년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세 살 때 수원역 앞에서 기아로 발견,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겨진 후 미국으로 입양됐다.

"제가 외아들이어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언제나 제 편에서 힘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제게 좋은 입양가정을 찾아준 홀트아동복지회에 인젠가는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평소 가지고 있었어요."

근무지를 한국으로 지원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모국인 한국에 꼭 한번 오고 싶었고,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던 것이다. 혹시 자신의 선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

면 어찌나, 내심 걱정하던 티모시 대위. 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좋아하자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20여 년 전의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란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또 사랑받았구나 싶어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티모시 대위가 홀트일시보호소를 찾고 얼마 지난 후, 그의 이야기는 <국민일보>에도 게재돼 추운 겨울의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데워주었다. 티모시 대위와 1,000개 장난감의 깜짝 방문, 그리고 함께 온 주한미국해병대 자원봉사단. 그들 덕분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더없이 행복한 하루로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한글



3색 이벤트로 따뜻한 나눔 기업

지난 연말 홀트아동복지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이용한 이채로운 후원 이벤트로 가득했다. 함께 트리를 만들고, 그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기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함께 만드는 소셜트리 유스트림코리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 별이 반짝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는 기부금이 늘어나는 신기한 크리스마스 트리! 홀트아동복지회와 유스트림코리아의 '라이브 소셜트리' 캠페인입니다.

라이브 소셜트리 ustream.tv/kr/socialtree

1. HOW
별이 반짝여요!
나의 SNS공간에 소셜트리를 공유하면 실시간으로 별이 반짝입니다.

2. MAKE
소셜트리를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록 예쁜 장식들로 꾸며집니다.

3. LOVE
소셜트리의 공유와 시청자수가 늘어 날 수록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이 커집니다.

시청자 수(기부금) **92,360,478**

45% 완성

함께 만드는 소셜트리 유스트림코리아

유스트림코리아에서는 SNS상의 참여자 수만큼 오프라인에서 트리가 완성되는 소셜트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트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큼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방송 시청만으로도 누구든지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으며, SNS 클릭 한 번만으로도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트리에 더해지는 장식이 다양해지고 화려해져갔다. 무엇보다 '모두의 힘으로 완성되어지는' 트리의 모습에 사람들은 많은 호응을 보내왔다.



함께 나누는 행복, WEME 나눔 프로젝트 9탄! 2013.12.10 ~ 12.30

WEME와 더 사랑하세요

“WEME 게임을 즐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2013만원의 성금이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됩니다.”

© WeMade Entertain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2,013만 원 후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윈드러너’ ‘에브리타운’ ‘날아라 팬더비행단’ 등으로 유명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기업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연말 캠페인을 통해 2,013만 원의 기금을 후원했다. 게임 사용자들이 위메이드의 대표 6개 게임에 접속해 간단한 미션과 퀘스트를 수행, 목표에 도달하면 2,013만 원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되는 캠페인이었다. 평소 즐겨 하던 게임을 통해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사

용자들의 참여를 크게 유도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일 동안 140만 명이 참여해 2,013만 원의 모금에 성공했다.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총 5회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번 캠페인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FLOWER IN THE AIR
FOR A BEAUTIFUL WORLD

다이지와 홀트아동복지회

사랑 나누기

다이지가 어린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누어 줍니다.

다이지 Facebook '좋아요' 3,000개 이상이면 150개 신제품 기저귀 가방을 미혼 양육모 가정에 전달합니다.

3,000 좋아요 달성 시 150개 신제품 기저귀 가방을 미혼 양육모 가정에 전달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좋아요' 및 '공유하기' 해주실 한 분당 한 번의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됩니다.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 아이들을 위한 데리카운터입니다.

앞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다이지 후원회 소식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후원금 전달 겐조·다이지

유명 향수기업인 겐조퍼퓸코리아(이하 겐조)와 아동 카시트로 유명한 다이지는 SNS 이벤트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아이들, 그리고 미혼 양육모들과 함께했다. 각 후원기업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적립된 횟수에 따라 후원금과 후원물품(아기 기저귀가방)이 적립돼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겐조는 2,000만 원의 후원금을 홀트아동복지회 아이들의 양육비로 전달했으며, 다이지에서는 150여 개 신제품 기저귀 가방을 미혼 양육모 가정에 전달했다.

겐조퍼퓸코리아와 다이지는 기존에도 우리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던 단체로, 이번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후원 방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나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업들과 협조할 계획이다.

겐조퍼퓸코리아와 다이지는 기존에도 우리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던 단체로, 이번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후원 방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나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업들과 협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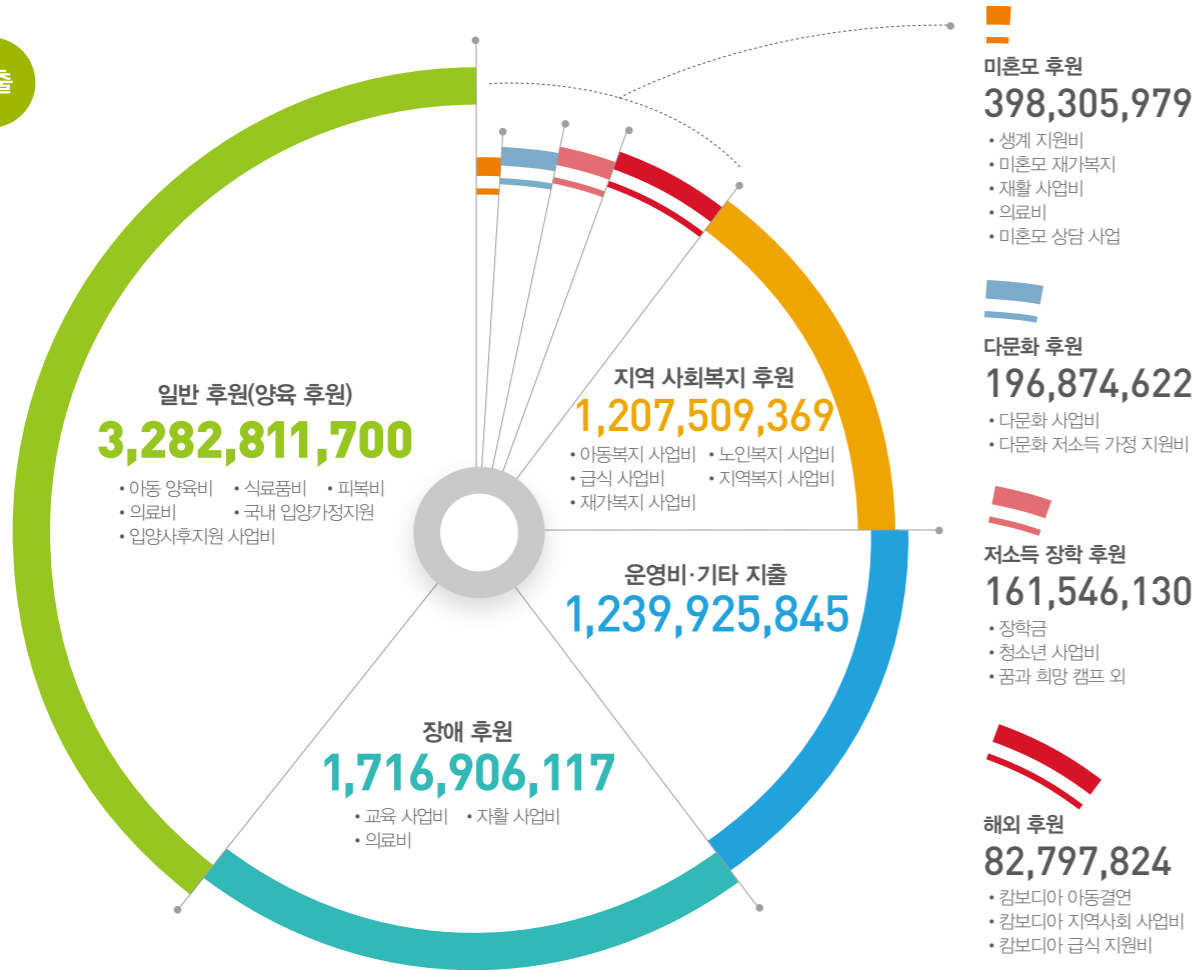
2013 후원금 사용 보고

2013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국내외에 나눔의 손길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후원으로 사랑을 전달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2013. 1. 1 ~ 12. 31) 단위: 원



세출



지출계 **8,286,677,586** | 차기 이월(이월금) **1,979,290,428**

2013 숫자로 본 나눔이야기

59,035/19,731

해외 사업

59,035명 교육 / 19,731명 무상급식
해외 빈곤아동을 위해 홀트드림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고, 무상급식과 의료 등도 제공했습니다.



국내 사업

434/275

434명 위탁가정 보호 / 275명 입양
홀로 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홀트병원에서 의료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했으며, 아동에게 부모와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266명 장애인 보호 / 192명 장애아동 교육
홀트일산복지타운과 홀트학교에서 장애인 보호 및 재활, 교육 등을 펼쳤습니다.

266/192

1,181,513

1,181,513명 지역사회복지 제공
전국 5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급식 지원,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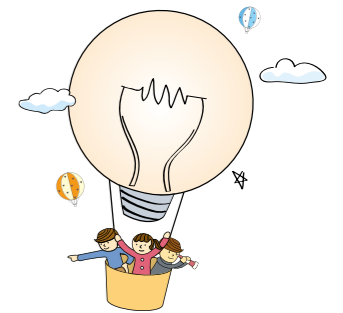
463/639

463명 미혼모 보호 / 639가정 지원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자립을 꿈꾸게 하고, 639가정에 2억 원의 육아지원금과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349,625명 건강가정 도모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가정 성장을 돕는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49,625



320명, 4억 원 장학 지원

전국 빈곤가정 아동과 대학생 3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320/400,000,000

● **사회공헌** ●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후원

롯데시네마는 우리회를 비롯해 총 3천 명의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해 전국 14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해피 셰어링(Happy Sharing)"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엘르, 미혼모자가정에 2천만 원 후원



패션 매거진 <엘르>가 2월 12일 우리회 강당에서 소외된 어린이와 여성들을 돕기 위한 '셰어 해피니스' 프로젝트로 마련한 기부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미혼모자가정의 아동양육을 위한 "행복나눔 지원사업"에 사용되며, 한 가정 당 월 20만 원씩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연예인 사진동호회 팝콘, 돌잔치 봉사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의 연예인 사진동호회 팝콘은 1월 20일 위탁아동 돌잔치 사진 촬영 봉사를 펼쳤으며, 코미디언 정중철과 신승환을 비롯한 멤버들은 아이들의 생일 축하 선물도 준비해 더욱 따뜻한 돌잔치가 되었다.

(주)해피랜드 F&C,

1억 원 상당의 동절기 유아용품 전달



(주)해피랜드 F&C에서 12월 23일 우리회에 1억 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전달해주어 소외된 아동과 이들을 위한 훈훈한 연말 선물이 되었다.

탐앤탐스 후원물품 전달식 가져

탐앤탐스는 1월 23일 우리회에 미혼모와 장애우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물품으로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담요 2,000장을 전달했다.

예스24, 따뜻한 기부 '사랑의 책 나눔' 행사 개최



우리회는 12월 21일 예스24와 롯데시네마의 후원으로 따뜻한 기부 '사랑의 책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책을 기부하면 도서를 드리는 행사로 2,727,050원이 모금되었으며, 개그맨 김인석·송준근 씨의 봉사로 즐거운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삼광글라스, 글라스락 클래식 텀블러 후원



삼광글라스는 미혼 가정과 위탁아동 이유식기 등으로 12월 18일 친환경 글라스락 클래식 텀블러 500개를 우리회에 전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아동을 위한 후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12월 3일 우리회 김대열 회장에게 위탁아동들의 양육과 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 전달했다.

제7회 심이 있는 콘서트 수익금 기부 사회

'누락 문화예술기획'(이하 누락)에서는 12월 19일 제7회 심이 있는 콘서트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다.

● **본부** ●

홀트장학금 전달식



우리회는 2월 24일 김대열 회장, 박영옥 서울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생들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장학생봉사단 홀트 서포터즈를 구성해 캄보디아 봉사 등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정혜영 홍보대사

'2014 꿈과 희망 지원금' 전달



우리회 홍보대사인 선·정혜영 부부가 전국 100명 아동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2월 19일 '2014 꿈과 희망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2009년부터 첫 장학증서를 받은 꿈동이 7명도 참석, 두 홍보대사와 만남을 가졌다. 선·정혜영 부부는 현재까지 우리회에 10억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물품후원도 3억 원 상당에 이를 만큼 어려운 아동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제5회 탐리더스 정기총회 개최

우리회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의 제5회 정기



총회가 1월 23일에 열렸다. 탐리더스는 2010년 우리회가 해외원조사업의 첫 시작을 일구어주었으며, 올해는 100명의 국내 저소득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서울 시민청 1주년 기념

"희망광고, 희망나눔전" 열려

우리회는 1월 11~12일 양일간 서울시에서 주최한 "희망광고, 희망나눔전" 행사에 참여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나눔을 공유했다.

핀란드리얼스타 메리크리스마스



핀란드대사관과 관광청, 핀란드 기업들이 함께 개최한 '핀란드리얼스타 메리크리스마스' 행사가 12월 23일 서울시장 광장에서 열려 박원순 시장, 김대열 회장 등 내외빈과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자율 모금된 기부금은 우리회 아동을 위해 기부해주었다.

2013 Say Hi(영어자원봉사자 모임) 정기모임 가져

Say Hi 영어자원봉사자 모임이 12월 20일 강당에서 열렸다. 봉사자 모임은 입양을 위해 입국하는 양부모님과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을 위해 통역과 시내투어 가이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해병대 봉사단 장난감 전달식 가져

주한미군해병대에서 12월 19일 우리회 아이들에게 장난감 1,000개를 선물했다. 이 행사는 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티모시 대위가 입양인으로



우리회 아동들과 우리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부 의사를 밝혀 이루어졌으며, 장난감은 위탁 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미혼모가정 아동, 저소득가정 아동, 그리고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의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말리 홀트 이사장 협성사회공헌상 수상



말리 홀트 이사장이 아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12월 17일 재단법인 협성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사회봉사 부문 협성사회공헌상과 상금 5천만 원을 수상했다. 말리 홀트 이사장은 투병 중임에도 수상식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상금 모두를 우리회에 기부했다.

제5회 캄보디아 입양 관련 공무원 초청 연수 마쳐



캄보디아 사회부 입양 관련 공무원 4명이 우리회에서 지난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연수를 받았다. 이는 캄보디아 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기획되었으며, 8일에 걸쳐 입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우리회 산하 기관인 미혼모시설, 일산복지타운을 방문했다.

점핑위드러브 사진전 개막식 열려



우리회가 후원하는 점핑위드러브 사진전 개막식이 12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가 필립할스만이 생전 당시 최고 리더들의 점핑과 격려 메시지를 담은 이 행사는 혼란스럽고 지쳐 있는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 **지방사무소** ●

강원사무소, 위탁모 교육

강원사무소는 12월 26일 위탁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지도와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5년 동안 근속하신 위탁모께 근속상을 전달했다.

대구사무소, 아이사랑공간 대구 1호점 탄생



유아용품 업체 BOM(대표이사 장민환)은 지난 12월 4일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의 입양대상 아동들과 사랑들 미혼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이사랑 공간 대구 1호점에 가입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영혼의 소리' 청파동교회 공연

'영혼의 소리' 합창단은 12월 8일 서울 청파동교회에서 특별공연을 열었다. 이곳은 홀트교회 협력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 이진호 목사님께서 당회장으로 계신 곳으로, 김대열 회장님께서 '축복의 끈'이라는 간증 말씀에 이어 '영혼의 소리'의 공연이 있었다.

**ING생명 임직원, 급여 끝전 모아
6천 7백만 원 성금 전달**



ING생명(대표 정문국)은 2013년 임직원 급여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기부금 6천 7백만 원을 홀트일산타운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해 기부해주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ING생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홀트학교** ●

2013학년도 홀트학교 졸업식



2013학년도 홀트학교 졸업식이 2월 21일 열렸다. 초등학교 34회 13명, 중학교 28회 13명, 고등학교 25회 19명, 전공과 2회 14명을 포함한 62명의 학생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수했다. 특히 전공과 졸업생 14명 모두는 지역사회의 학교 도서관과 제과제빵소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해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겨울 직업체험학교 직업재활팀에서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직업체험학교를 열어 총 11명(여자3, 남자8)이 참여,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전훈련, 사업체 견학 및 체험, 자립생활훈련, 여가활용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작은 나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2월 14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행사를 가졌다. 행운의 전통놀이 한마당, 보름밥 나눔 코너 등을 운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1월 21일(화) 재단법인 넥센 월석문화재단(이사장 강병중)에서 햅쌀 20kg 225포를 후원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14년 큰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졸업식**



초등학교 전용 지역아동센터 큰나무교실에서는 2월 3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졸업생 가족과 복지관직원 및 센터 교사들과 함께 6학년 아동들의 졸업식을 진행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제6회 사회교육 학예발표회**



사회교육 이용 아동과 지역주민 2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월 14일 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

램 이용 아동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뽐내는 학예발표회가 열렸다. 미술전시회와 피아노 독주 및 합주, 영어교실의 영어연극 등 다양한 무대로 모두를 즐겁게 한 행사였다.

● **미혼모자시설** ●

고운돌, 홀트고운학교 제4회 졸업식



2013학년도 홀트고운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 2월 13일 교양교육실에서 열렸다. 아픈 과거를 딛고 새출발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축하를 전하는 자리였다.

아침뜰, 하나은행 공익신탁기금 전달식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은행이 1월 28일 대전 중구청의 추천으로 아침뜰 입소산모의 건강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물품(비데·좌욕기) 구입 기금을 아침뜰에 전달했다.

대전클로버, 미혼모자 가정 새해 계획 세우기

2014년 새해를 맞이해 대전클로버 엄마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계획과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가족들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하고 공동의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열어 226명의 가족이 연극·영화관람, 축제 등에 참여하며 가족애를 나누었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범물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경제교실**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와 연계해 2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범물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경제교실 2회기를 진행, 시장경제에 관한 안목을 증진시켰고, 금융 이해력 진단과 용돈 관리 교육을 통해 금융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기를 수 있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4회기 동안 '다름을 이해하는 행복한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을 열고, 애니메이션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는 물론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의 열매 신선헌농탕 나눔 행사' 신선헌농탕 직원들과 결혼이민자들은 설을 맞이해 1월 22일 설렁탕 1,004인분을 개별포장 작업 봉사를 펼치며 이웃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흥패션 강사 자격증 대비반 개강 및 운영

수성구다문화센터는 대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1월 23일 결혼이민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흥패션 강사 자격증 대비반을 개강, 1월부터 6월까지 총 40회기 동안 진행하며, 재봉틀 사용 법과 모자, 만들기를 배우게 된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학금 전달식 및 부모교실**



2014 춘천 다문화가정 자녀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이 2월 18일 강당에서 열려 42명에게 총 45,200,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본 장학금은 (주)뉴스 커뮤니케이션스(대표 박수환) 희망나눔 장학금과 우리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마련되었다.

홀트심리상담센터, 동부교육청과 업무협약식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와 홀트심리상담센터가 12월 10일 학교 교육복지 대상자들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전주영아원** ●

전주영아원, 즐거운 세배



1월 29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며칠 동안 세배예배를 배운 후 우리 어린이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원장님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도 듣고 선물도 받았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어린이 국악뮤지컬 관람

원아들은 2월 7일 남산 한옥마을에서 공연하는 '배짱이와 바이올린' 어린이 국악뮤지컬을 관람, 전통악기와 바이올린의 조화로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이었다.

중동어린이집, 졸업식



2월 21일 중동어린이집에서는 23회 졸업식이 있었다. 22명의 졸업생들은 교사와 헤어지는 아쉬움 및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각각 낭독하는 순서로 답사를 대신했으며, 개성대로 모두 상을 받았다.

홀트어린이집

원아들의 작은 발표회가 12월 20일 열렸다.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준비한 율동을 발표하며 1년 동안 성장한 원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전국후원회** ●

서울후원회와 성남후원회 신년하례식 가져

서울후원회, 성남후원회 주최로 1월 7일 본부 강당에서 김대열 회장, 김경희 고문, 서울후원회 박영옥 회장, 성남후원회 신영의 부회장, 본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강원후원회,

신년하례식 및 다문화센터 후원금전달 강원후원회는 1월 14일 홀트강당에서 다문화가족 합창단에게 한복지원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이웃들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며 후원할 것을 다짐했다.



수줍음 잘 타던 한 소녀가 용기를 내 발표를 합니다. 홀트드림센터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찾아줬습니다.

‘당신의 후원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밝힙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 의료비, 재활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후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언니

홀트와 함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58년의 시간들 말리 홀트 지음

외롭고 상처 입은 아이들의 영원한 언니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삶을 살아온 백의의 천사

사랑은 행동이며 아름다운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일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되뇌인다. ‘제 사명은 이곳 한국, 홀트에 있습니다.’(에필로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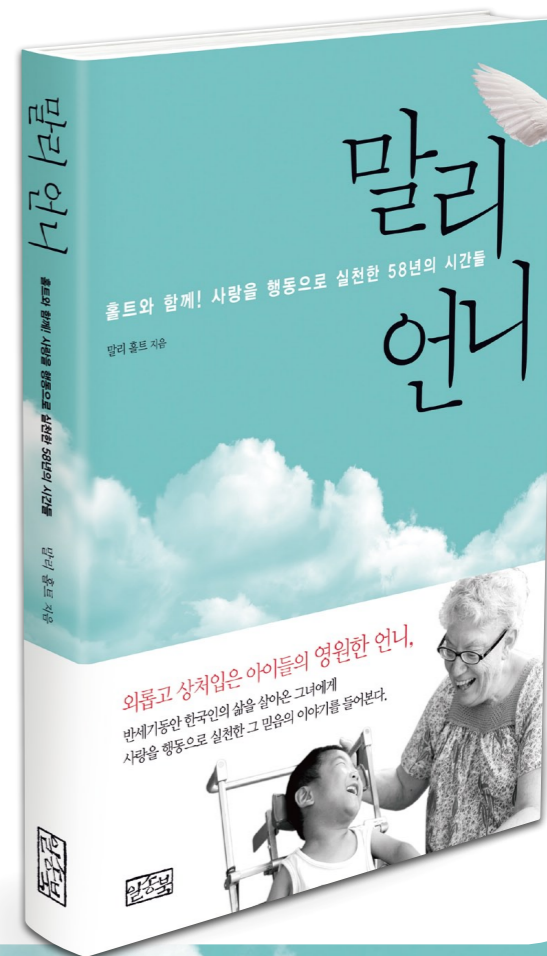
말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이 58년 한국과 함께한 헌신의 삶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956년 스물두 살,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낯선 한국 땅을 밟은 그녀는 간호사로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전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른 가운데서도 남은 생을 ‘마음껏 사랑하는 일’에 쏟아야 된다고 말할 만큼 한평생 독신으로 소외받은 전쟁고아와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온 일생을 바친 말리 이사장의 삶이 ‘말리 언니’에 녹아 있습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

1935년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화이어스틸 출생, 세이크리드 하트 간호전문대학과 오레곤 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및 특수교육 이수. 1998~현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국민훈장 석류상, 대학적십자 인도장, 비추미여성대상 특별상, 노르웨이 국왕 훈장 등 다수 수여.

도서 문의 02-331-7079(홍보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우리 손으로
만든 장난감을 쥐어주고 싶다는 꿈!



영밀업